

KRX Mid200… 중소형주에 자금 유입 방아쇠 당기나

KRX300을 이을 새로운 KRX 시리즈 지수가 등장한다.

바로 KRX Mid200이다. 기존 대표 지수들이 대형주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과 달리 이번 지수는 중·소형주에 초점을 맞췄다. 대형주 위주로 구성됐던 코스피200, 코스닥 150, KRX 300과 달리 코스닥 시총 비중이 코스피보다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부족했던 중소형 지수의 수요를 충족시켜 벤치마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5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우량 중형주와 소형주로 구성된 ‘KRX Mid200지수’를 개발해 발표했다. 올해 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2월 통합 대형주 지수인 ‘KRX 300’이 출시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KRX Mid200은 코스피 67개 종목과 코스닥 133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시총 비중으로 따지더라도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코스피 35.6%, 코스닥 64.4%다. 구성 종목의 시가총액은 158조(80%)이 200억~5000억원 사이에 분포한다. 종목별 평균 시총은 약 4000억원이다.

종목 선정 기준은 기존 KRX300 방식과 동일하다. 먼저 코스피·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중 실질적으로 펀드 운용이 가능한 종목을 1차로 추린다.

이후 시장 규모(시가총액 상위 700위 이내), 유동성(거래대금 순위 85% 이내), 재무상황

기존 대형주와 달리 중소형주에 초점

시총 비중 코스피 35%·코스닥 64%

시총 158조 2000억~5000억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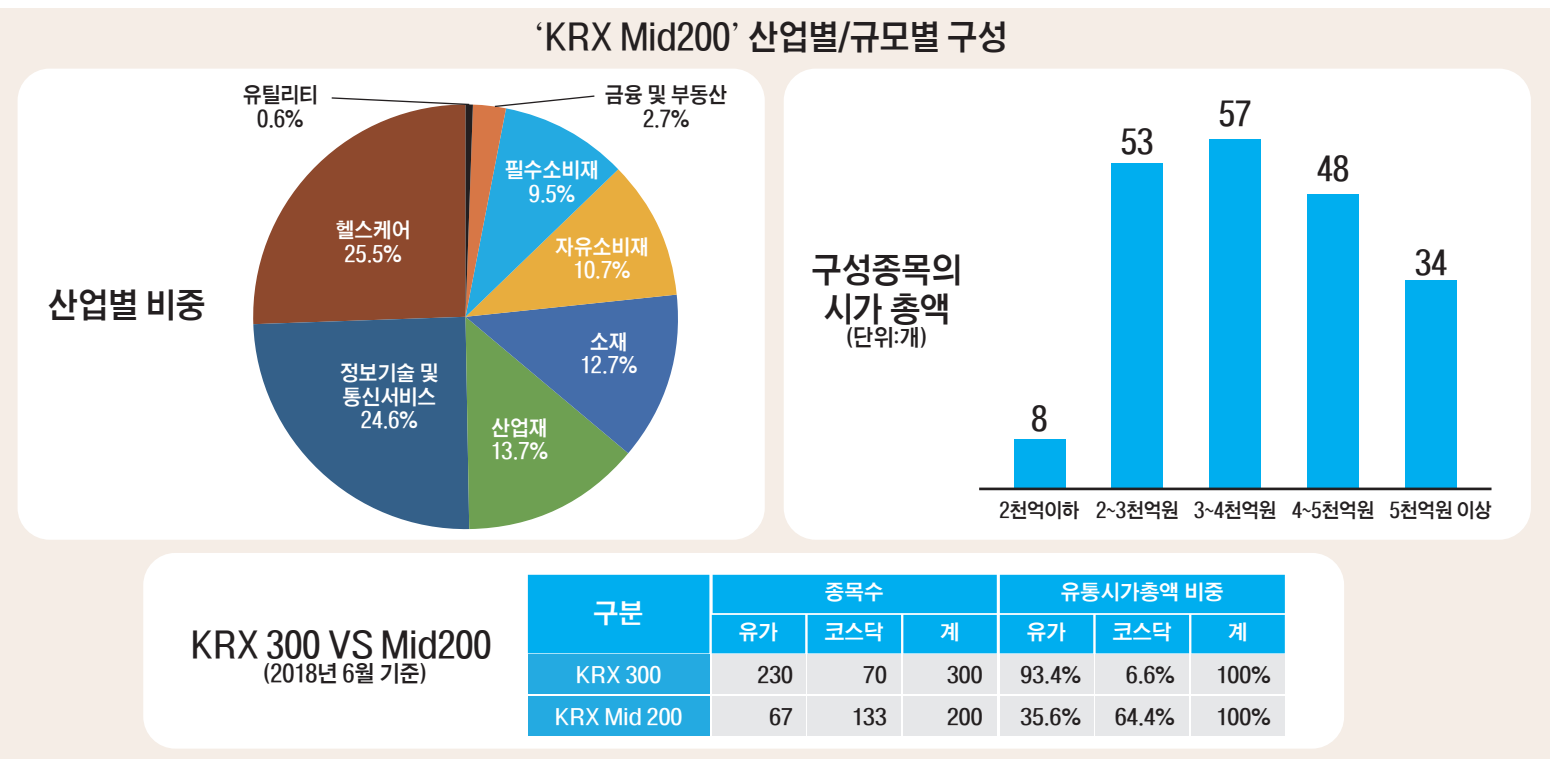
종목별 평균 시가총액은 4000억원

ETP 출시 땀 중형주 거래 활성화로

국내 증시 균형성장 역할 기여 기대

(자본잠식 및 유동비율 20% 미만 종목 제외) 등을 통해 200개 종목을 최종 구성 종목으로 포함했다. KRX 300이 700개 종목 중 시총 상위 300개라면 KRX Mid200은 하위 400개 중 상위 200개에 해당하는 셈이다.

KRX Mid200 지수는 출시 첫날 전 거래일(소급산출 지수) 대비 15.49포인트(1.03%) 오른 1513.19로 장을 마쳤다.



통합지수 가운데 대형 우량주 위주인 KRX300(-0.02%)과 KRX100(-0.12%)은 하락했으나 KRX Mid200은 기존 중소형주 지수인 ‘코스피 중형주’(1.07%)나 ‘코스닥 스몰’(1.03%)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 또 ‘코스피 소형주’(0.79%)나 코스닥 중형주 300종목을 묶은 ‘코스닥 M300’(0.75%)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

시장 관계자들은 최근 대형주가 부진한 상황이 중소형주 위주인 KRX Mid200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창구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최근 대형주가 부진하고 지수도 밀리는 상황이 중소형주 위주인 KRX Mid200에는 좋은 대안”이라며 “KRX Mid200은 비교적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을 추려 구성했다는 점에서 기존 소형주 지수보다 성과가 좋게 나온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KRX Mid200을 기초로 하는 다양한 ETP(상장지수상품)가 출시되면 중형주 거래 활성화로 이어져 국내 증시의 균형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중형주 지수를 기초로 하는 ETF(상장지수펀드)는 4개에

불과하고 ETN(상장지수증권)은 전무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KRX Mid200을 사용하는 금융상품이 대거 출시되기는 어렵지만 가치주 상장지수펀드(ETF), 고배당 ETF 같은 스마트베타 ETF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자산운용업계에선 KRX Mid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마트베타 ETF를 준비하고 있다. 스마트베타 ETF는 가치주 위주로 구성된 밸류 인덱스나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으로 구성된 고배당 인덱스처럼 특정 성향의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활용하는 ETF를 의미한다.

손현지 기자 hyunji@

약달러 매입 강달러 매도… 환테크 뜬다

은행 강달러 예상… 상품 출시 붐

달러 가치가 떨어졌을 때 사뭇다가 강세에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환테크가 뜨고 있다.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이 같은 달러 강세 전망이 우세하다. 은행들은 이를 놓치지 않고 환테크 상품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환테크 기능에 사용 편의성까지 높인 달러전환용(USD) 적립예금 신상품 ‘달러 More 환테크 적립예금’을 출시했다. 달러를 적립할 때 최대 70% 환율 우대해주며 적립된 달러를 사용할 때 체인지업 체크카드로 해외가맹점에서 수수료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원화에서 달러로 전환할 경우와 달러에서 원화로 전환할 때 모두 기본 환율 우대 50%가 적용된다.

자동매입 환테크 기능도 있다. 미리 정한 상한환율을 초과해 환율이 상승할 경우 자동으로 채가 일시 정지되며 하한환율 미만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고객이 미리 정한 배수 단

위로 추가 적립이 가능하다.

BNK부산은행은 원화통장과 외화통장을 하나로 합친 통장 ‘BNK EASY 환테크 듀얼통장’을 출시했다.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환율에 도달했을 때 통화 간 자동매매되는 통장으로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가입 가능하다. 각 지점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에서 미국달러화(USD),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중국 위안화(CNY) 4개 통화에 건당 미화 100달러부터 10만달러 상당액까지 매매주문할 수 있다. 주문 유효기간은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지정 가능하다.

석지현 기자 cake@

3월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위·변조대응센터 직원이 달러화를 검수하고 있다.▶



KB, 연립·다세대 시세 서비스 제공

200만가구 시세 매월 업데이트

KB국민은행과 공감랩이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 Liiv ON(리브온)’을 통해 연립·다세대 공동주택 시세 서비스를 출시했다.

아파트·오피스텔만 제공하던 KB부동산 시세에 빌라로 통용되는 연립·다세대도 더해져 공동주택 시세 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연립·다세대 시세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6대 광역시(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를 제공하며 약 220만 가구 시세가 매월 업데이트된다. 이 서비스는 KB부동산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으며 아파트 면적별 시세와 달리 개별 가구단위의 시세와



배치도를 볼 수 있고, 지하철 거리 교통정보,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여부, 해당 주택지역의 재개발관련 정비구역 여부, 엘리베이터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연립·다세대 시세는 인테리어나 개별적인 특성이 반영되지 않으며 건축물대장, 실거래가격, 공시가격 등 공공데이터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정가격이다.

당신의 봄

대한민국 당뇨인의 천만다행을 위해

천만다행

혼자하면 힘들고 어려운 당뇨관리
내 손안의 든든한 당뇨 주치의
마이헬스노트가 있으면, 천만다행!

당뇨병 고객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마이헬스노트 앱

안드로이드용 앱

아이폰용 앱

자가관리 서비스

혈당기록, 자동 칼로리 계산, 걸음 수 측정이 편리

건강 정보 서비스

영양, 수면, 스트레스 등 다양한 주제의 건강정보 제공

전문가 코칭서비스

강북삼성병원 당뇨전문센터 전문을 통한 맞춤상담

무료 이용 서비스

삼성화재 실손보험 가입자 중 30대 이상 당뇨병 보유 고객이라면 무료 이용 가능

*마이헬스노트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용)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마이헬스노트' 앱을 검색 하면 바로 설치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은 삼성화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를 참고해 주세요.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